

[기획]

광주일보·전남대 문화예술사업단 공동기획

온누리안 리포트 <국제결혼 다문화가정>

제3부 2세들의 힘겨운 나날

<15> 화순 천태초등학교의 다문화 교육

“각국 문화 배우며 마음의 벽 허물어요”

화순군 도암면 천태초등학교. 전형적인 산간벽지 농촌에 자리잡은 이 학교의 국제결혼 다문화가정 학생은 11명이다. 전교생 51명의 20%를 웃돈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10명 중 3명, 2학년은 7명 중 4명, 3학년(9명)과 4학년(10명)이 각 2명 등이다. 2학년의 경우 절반 이상이 이주여성의 자녀들인 셈이다. 지난 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남성과 동남아 출신 이주여성간 결혼이 급격히 늘었고, 저학년으로 갈수록 학생수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취학 자녀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김중영 교장은 “학구내외 도암면 일대 다문화가정은 22가구에 그 자녀는 35명에 달하지만 이 중 현재 7가구만 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어 향후 취학생이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취학생 증가에 따라 학교측은 최근 학생들(50명)과 교사(8명), 학부모 및 국제결혼 이주여성(30명)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일반 학생들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태도와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기초학습능력 수준, 학교 적응 상황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조사 결과 전체 학생의 78%가 외국인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다. 우리나라와 다른 생활양식에 대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도 84%나 됐다. 또한 일본과 필리핀 출신이 대부분인 어머니들의 한글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학생들도 우리 글과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력 수준 높이고 정체성 길러

교사들도 다문화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교육을 하려해도 지도 자료가 없거나 방법을 몰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75%)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교사들은 또한 기초학력이 부족한 다문화 가정 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으나 부진 원인에 대한 분석이나 그에 따른 개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에는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토론했다.

학부모들 역시 외국문화에 대한 이해도 및 수용도가 매우 낮았다. 이주여성들의 경우 80%가 가정에서 숙제 돕기 등 학습보충지도가 어렵다고 느끼고 있으며, 학교에서 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바랐다. 또한 한국어 공부와 전통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한 목소리로 요청했다.

이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천태초등학교는 교육부에 ‘다문화교육 정책연구학교’ 지정을 신청, 올해 전국 20개교 가운데 하나로 지정받았다.

그 이후 전체 교사들이 머리를 맞대어 ‘다문화 이해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했고 지난 3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다. 교육의 초점은 ‘학생 개개인의 자아정체성 기르기’에 맞춰졌다.

연구부장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맡고 있는 김형래 교사는 “학생들에게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편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과 세계 시민의식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기초학력 수준을 높여주고 자아정체성을 함양시켜 당

천태초등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

- ① 외국어 교실
다문화 가정 학부모 강사 참여
나라별 풍습·에티켓 등 익히
- ② 6남매 자매결연
일반-다문화 가정 6명씩 결연
유적지 탐방·책방 나들이 체험
- ③ 다문화 가정 학부모 사랑방
일주일 두 번 이주여성들에
한글·국악 가르치고 상담도

당한 한국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미취학 자녀 대상 유아교육도

모든 교사와 학생이 참여하는 ‘다문화 이해 교육프로그램’에는 ‘세계 여러나라의 인사말’, ‘인종과 주거 형태’, ‘우리나라 가정과 외국 가정’ ‘약속에 대한 문화 차이’ ‘각국의 민속무용 및 민속놀이’ ‘외국인 친구들에게 가족 소개하기’ ‘지구촌 시대’를 주제로 한 내용이 포함된다. 김 교사는 “7차 교육과정 5·6학년 교과서에 다문화 부분이 보완됐지만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일반 교과 내용에 더해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방과후에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1시간씩 이주여성들에게 한글과 국악을 가르쳐주고 상담도 해주는 ‘다문화가정 학부모 사랑방’을 운영하고 있다. 미취학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유아교육도 실시한다.

다문화가정 학부모가 강사로 참여하는 ‘외국어 교

실’ 프로그램도 있다. 일본과 필리핀 출신 이주여성이 직접 일본어와 영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외국인 과 외국어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주고 다른 나라의 풍습과 에티켓을 익히는 교육이다.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 학생 6명씩 자매결연해 지역의 문화유적지 탐방과 책방나들이, 꽃밭가꾸기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하는 ‘6남매 자매결연’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기 위해서다.

유네스코 광주·전남협회의 후원으로 매달 한 차례씩 개설되는 ‘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교실’은 인기 프로그램이다. 지난 21일 인도문화교실에는 광주과기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인도 출신 실과 라니씨가 강사로 참여, 인도의 전통의상과 상징물 소개, 인사말 나누기, 전통 화장 ‘반디’ 및 아리비아 숫자로 그림그리기 등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28일에는 현장 체험으로 광주 인도박물관을 견학하기도 했다.

“아이들 적극 참여 부딪해요”

문화교실에 참가한 2학년 흥은정양은 “우리는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데 인도도 우리랑 비슷하게 부른다는 게 너무 신기했다”며 “앞으로 궁금한 것은 더 알아보고 인도 여행을 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오는 10월에는 ‘다문화 행사주간’을 지정해 다문화 이해 글짓기와 그림그리기, 음식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종합발표회도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일본, 필리핀, 몽골, 베트남, 중국 등 아시아 각국의 도서와 사진, 음식, 의상, 놀이 등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문화 체험실’도 운영할 계획이다.

‘학부모와 함께 하는 일본어교실’의 강사이자 이 학교에 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인 기하라 아케미씨는 26일 수업을 마친 뒤 “아이들이 편 흥미 있어 하고 참여에도 적극적이어서 부딪힘을 느낀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사범대를 졸업하고 교사자격증까지 있는 그는 학부모로서 역할에 대해 “모르는 단어가 많고 발음도 좋지 않아 아이들 공부 봐주기가 버겁다”며 “결국 학교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기하라씨는 “아이들이 한·일간 과거사를 배우고 오면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다”며 “일본은 개인적인 문화이고 한국은 정의적인 차이가 있지만 개인적인 똑같은 인격체로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사는 “국제결혼 이민 여성이 많은 전남의 경우 2010년 이후에는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초등교육이 힘들어질 것”고 지적했다.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그만큼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화순천태초등학교가 매달 한 차례 개설하고 있는 ‘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교실’에 강사로 나선 인도 출신 실과 라니(광주과기원 박사과정)씨가 지난 21일 학생들에게 인도의 상징물과 문화유적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화순천태초등학교에 두 자녀를 보내고 있는 기하라 아케미씨가 지난 26일 ‘학부모와 함께 하는 외국어 교실’ 강사로 나서 3~4학년 학생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다. /화순=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한국어·한국 문화 온라인으로 배우세요”

전남도, 디지털대학 등과 협약

‘e-배움 캠페인’ 8월부터 실시

전남도가 여성 결혼 이민자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교육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지난 20일 한국디지털대학교 대강당에서 이 대학과 포스코, 경북도와 공동으로 ‘다문화가정 e-배움 캠페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언어와 문화적 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동남아 등지의 결혼이민자의 성공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 자치단체와 기업, 학교가 협력, 우리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는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오는 8월부터 각 시·군별로 시행되는 교육 내용은 컴퓨터 기초와 인터넷, 문서작성 등 정보화 교육을 비롯 한국어 초·중·고급, 한국사회와 문화 등이다.

한국디지털대는 온라인 강의 교재 제작 및 교육 운영을, 포스코에서는 교육에 소요되는 재정을, 도에서는 교육료 모집 및 관리, 교육장소 등을 각각 지원한다.

특히 이 교육은 한국어 이외에 중국어와 베트남어, 일본어, 영어 등 5개 국어로 제작된 콘텐츠를 온라인(http://e-campaign.kdu.edu)으로 교육한다는 점에서 다른 프로그램들과 차별화된다.

한편 담양군과 경북 구미시는 지난 2월부터 한국디지털대의 지원으로 한국어교육 온라인교육 시범사업을 펼쳐 결혼이민자와 가족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



건강100세를 실현하는 ILDONG 일동제약

봄철 피로- 활성비타민으로 풀고, 활력을 찾으세요

활성비타민은 일반비타민에 비해 흡수가 잘 되며, 신경조직에 침투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체내 이용률이 높습니다. 아로나민에 들어 있는 활성비타민은 피로물질들을 분해해 잘 풀리지 않는 피로를 풀어주고, 에너지 대사를 촉진해 활력을 줍니다. 활성비타민의 효과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피로·눈의 피로·신경통·관절통에 - 아로나민 골드
피로의 원인은 근육과 신경에 쌓인 피로물질 활성비타민 B1, B2, B6와 비타민 C·E가 피로물질을 분해해 피로를 풀어줍니다

피로·기미 주근깨·임신 수유기에 - 아로나민 씨플러스
비타민 C·E, 아연, 셀레늄 등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항산화제를 보강하여 피로는 물론 여성의 피부건강에도 좋습니다

기미가 개선됩니다!



▶ 300정, 150정, 100정

아로나민 골드 아로나민 씨플러스

■ 제품문의: 080-022-1010 (주)일동제약 ■ www.aronamin.com